

우레탄계 접착제

우레탄계 접착제의 94년 생산량(조합사 기준)은 1만664톤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는데 이는 93년 9416톤 5.2% 감소에 따른 역작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발용 PU접착제

신발용 PU접착제의 국내 총수요는 94년기준 1만9432톤으로 신발에 대부분 사용되며 따라서 신발산업의 침체와 원료가격 폭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발용 PU접착제 수요 2만여톤 중 동성화학이 75.1%인 1만5372톤을 생산했으며 대보가 9.7%인 1950톤, 상신이 8.1%인 1620톤, 명광화학이 1.9%인 400여톤을 생산해 동성화학의 시장독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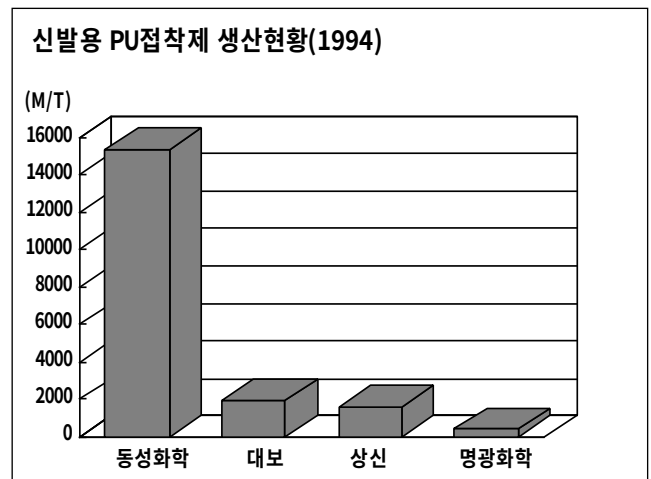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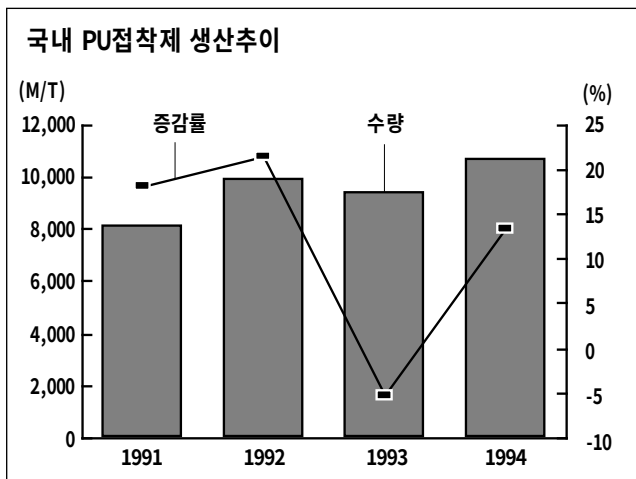
그러나 신발용 PU접착제 시장은 이같은 수요규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신발산업의 침체로 내수와 수출비율이 21대79로 나타나 수출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동성화학의 신발용 PU접착제 생산량도 정체 또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어 92년 1만7006톤을 생산했으나 93년 1만5349톤, 94년에는 1만5372톤을 생산했다.

동성화학의 가동률은 94년 생산능력 3만5400톤대비 61.3%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내수침체로 인도네시아에 연산 1만1000톤, 타이에 연산 6000톤, 중국에 3600톤 공장을 이전시키는 등 신발용 접착제 공장을 해외 현지로 상당부분 이전시켰다.

신발용 PU접착제의 가격은 94년초 Kg당 1445원에서 95년초 1450원으로 기초원료인 MDI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MDI가격은 94년말 톤당 1400달러에서 95년6월현재 톤당 2000달러를 넘는 등 높은 가격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MDI가격도 94년대비 42.8% 인상된 톤당 145만원선을 보이고 있어 신발용 PU접착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PU접착제

산업용 폴리우레탄 접착제 수요는 신발용 PU접착제의 수요감소와는 대조적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실란트 시장의 경우 건축용에서는 실리콘 실란트 수요가 약 60%, 비실리콘계가 40%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실리콘계중 PU계 실란트가 절대비중을 보여 30%를 차지하고 있다. 아크릴/부틸 실

란트 등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조립식건물에서는 PU계 실란트 사용이 불가피해 이부문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료용의 경우도 PU계 실란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PU계 실란트는 1액형 수발포형과 1액형 습기경화형 우레탄, 2액형 반응형으로 구분하며 국내에서는 강남화성, 고려화학, SKI, 오공산업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액형보다 2액형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2액형에서 1액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란트의 거래가격은 실리콘 실란트가 Kg당 5000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PU계 실란트는 Kg당 2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어 PU계 실란트가격이 신발용 PU접착제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96 화학연감 >